

발행처/(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미래관 807호, 808호 교육연구소

E-mail/ ier@kangwon.ac.kr 발행인/박주병 주임교수 주간/신철균 교수 부주간/박찬수(박사과정), 최강현(석사과정)

**Vol. 15**

2023년

**10월 27일**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지역&교육협력

**SINCE 2020**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http://keri.kangwon.ac.kr/>



**KNU**  
강원대학교

# Contents

Vol. 15



## 교수 논문

고등교육 보편화시대, 대학혁신의 방향과 과제  
/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 졸업생 기고

대학원 졸업 이후의 일상  
/ 이서현(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 1기/북원여자고등학교 교사)



## 편집위원 기고

농어촌 지역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계 고찰  
/ 박찬수(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 박사과정/샘마루초등학교 교사)



## 재학생 기고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는 교육을 꿈꾸며  
/ 강진주(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속초고등학교 교사)



## 지역교육협력학과 소식

### 2023미래교육라운지

\_ Bystander intervention in the workplace  
(학교 내 갈등상황에서 주변인 개입)

### 제12차 2023 Innovation Series

\_ 미래학습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2023학년도 2학기 지역교육협력학과 학위논문자격시험

2023학년도 2학기 지역교육협력학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 대학혁신의 방향과 과제<sup>1)</sup>

남수경(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 1. 고등교육 보편화시대 대학의 역할과 기능

마틴 트로우(Martin Trow)교수는 1973년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의 후원으로 「고등교육이 엘리트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을 발행하였다. 대학 취학률을 토대로 고등교육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대학 취학률이 15% 미만은 ‘엘리트 단계’로, 대학 취학률 15% 초과 ~ 50% 미만은 ‘대중화 단계’로, 대학 취학률이 50%를 초과할 경우를 ‘보편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Trow(1973)의 고등교육 발전단계를 토대로 볼 때, 198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학 취학률은 15% 미만의 엘리트단계였다. 그 이후 대학 취학률은 1982년 17%에서 1994년 30%를 넘어서는 대중화단계를 거쳐서, 2000년에는 50%를 초과하여 보편화단계에 접어들었다. 2008년 대학 진학률과 취학률은 각각 83.8%와 70.6%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11년 이후 70% 내외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Trow(1973)는 고등교육의 발전단계별로 고등교육의 기능, 수업 형태, 제도적 특징 등에서 주요 변화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표 1> 참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교육 보편화시대, 고등교육은 더 이상 대중의 삶과 유리된 학문적 논의에 매몰되거나 학과나 전공의 경계를 구분 짓는 활동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첫째, 보편화단계 고등교육의 기능은 “급속한 사회 및 기술 변화에 대한 전 국민의 적응력 향상”에 있다. 이는 지배계급 양성이라는 엘리트단계의 기능이나, 광범위한 기술 및 경제 엘리트 양성이라는 대중화단계의 기능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둘째, 커리큘럼이나 수업의 형태 측면에서는, 엘리트단계의 경우 학문이나 전문 지식 기반의 구조화된 형태를 띠는 반면, 보편화단계의 경우 경계와 순서가 붕괴되고 배움과 삶의 구분이 파괴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1) 이 글은 “남수경 외(2022). 대학교직원을 위한 교육학.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저자의 발표문의 일부를 발췌·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셋째, 보편화단계 고등교육의 제도적 특징은, 공통된 기준이 없는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하고, 시간제 등록생이 확대되며, 경계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평생교육 측면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표1〉 고등교육 발전단계별 주요 특징

구분	엘리트단계 (15%미만)	대중화단계 (15%초과-50%미만)	보편화단계 (50%초과)
고등교육의 기능	-지배계급의 마음과 성격 형 성 -엘리트 역할 준비	-기술의 전달 -광범위한 기술 및 경제 엘 리트 역할을 위한 준비	-급속한 사회 및 기술변화에 대한 '전국민의' 적응력 향상
커리큘럼 및 수업형태	-학문적 또는 전문적 지식 기반의 고도로 구조화된 형 태	-모듈식, 유연하고 반구조화 된 일련의 과정	-경계와 순서의 붕괴, 배움과 삶의 구분 파괴
제도적 특성	-높고 일반적인 표준과 동질 성 -소규모 주거 커뮤니티 명확하고 불침투성 경계	-보다 다양한 표준으로 포괄 적 -'지능의 도시' : 주거/출근 혼 합 -경계가 모호하고 투과성	-공통된 기준이 없는 엄청난 다양성 존재 -캠퍼스에 거의(전혀) 다니지 않는 등록생의 집합체 -경계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음
권력의 소재와 의사결정	-소수의 엘리트 그룹에 의해 서 공유된 가치 및 가정	-이익 단체 및 정당 프로그 램의 일반적인 정치적 절차	-'대중'은 학계의 특권과 면 책의 의문 제기
학업기준	-널리 공유되고 상대적으로 높음(능력주의 단계에서)	-변하기 쉬운, 제도·기관 '다 양한 학문적 기업 지주회사'	-기준이 '표준'에서 '부가가 치'로 이동
접근과 선택	-학업성취도에 따른 성취도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 한 능력주의와 '보상 프로그 램'	-'개방, 집단 성취의 평등' 강 조
학업관리 형태	-'행정은 아마추어' 시간제 학자들 -기간제 선출/임명	-전업 관리자의 등장, 관료제 확대	-'특정 분야에 매우 전문적 인' 전일제 교수집단 등장 -외부(민간)교육기관의 경영 기법 도입
내부 거버넌스	-원로 교수	-학생들의 영향력과 연계한 일반 교수와 젊은 회원들	-제도적 거버넌스보다 합의 기반 -의사결정이 정치권력의 손 으로 흘러감

자료: (Trow, 1973)

넷째, 엘리트단계 대학은 절대 성역의 권력이나 면책 특권을 유지하였으나, 보편화단계 대학에 대해서 ‘대중’은 학계의 특권과 면책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대학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중은 왜 대학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 문제제기와 비판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다섯째, 학업의 기준은 표준화된 것으로 규정되기보다는 ‘부가가치’로 이동하게 된다. 즉, 학문적 성취라는 것도 결국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가와 관련시켜서 논의하게 된다.

여섯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과 선택은 더욱 개방화되고 ‘집단 성취의 평등’이 강조된다. 즉, 특정 계급이나 계층이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과 선택의 기회를 독점하기보다는 다양한 계급이나 계층의 집단에 개방되고, 성취 결과에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이 강조된다.

일곱째, 학사관리에서는 특정분야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교수집단이 등장하고 외부(민간) 교육기관의 경영기법이 적극 도입된다. 끝으로, 내부 거버넌스는 제도나 규정 자체보다는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화된다.

## 2. 최근 우리나라 대학지원정책의 핵심 키워드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등장 이후 교육부 대학지원정책은 ‘대학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재편되고 있다. 대학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학별 특성에 기반을 둔 자율 혁신을 추구하되, 학사 유연화, 전공간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간 융합적 노력을 통하여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경계를 더욱 느슨화하고, 한단계 더 나아가 대학간 또는 대학과 지자체나 민간기관간 개방, 공유,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신산업 인력양성을 추구하되, 직업훈련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의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선도자적, 중재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 역시 변화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그림 1] 2019년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키워드

### 3. 대학혁신의 방향

로이터(Reuters)나 US News 등 영국과 미국의 언론사들은 기존의 연구 중심 순위평가와 구분되는 ‘혁신적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혁신 평가는 무엇보다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경제적·기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대학의 역할은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지역혁신 시스템(Regional Innovative Systems) 등이 강조된다. 보다 광의에서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사회, 문화, 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Trippl, et. al., 2015).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혁신적 대학(Innovative universities)’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취업 시장의 흐름을 계속 주시하고, 둘째, 자신의 벽을 넘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셋째, 전체 구성원이 기술 친화적이고, 넷째, 단순히 우수사례를 모방하지 않으며, 다섯째, 오늘날 학생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인다. 결국 혁신적 대학들은, 앞서 살펴본 Trow(1973)가 말하는 보편화단계의 고등교육 기능, 즉 외부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전통적인 방식의 학사 구조나 교육과정 또는 교수자 중심의 전공 기반 연구나 교육으로 과감히 경계를 허물고, 변화하는 기술을 교육과 연구 전반에 적극 수용하며, 외부의 우수사례를 수용하되 자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와 연계하여 변혁적 재구조화로 발전시키고 있다.

보편화단계 고등교육의 기능이나 대학지원정책의 핵심 키워드 등을 토대로 볼 때, ‘대학혁신’은 교수 학습의 방법론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육성, 창의성의 향상, 협업의 장려, 포용성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Stephanie, 2021). 따라서 ‘대학혁신’은 세부적으로 연구 혁신(국가 및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 창출 선도), 교육혁신(학생주도성 기반 교육의 실천과 학생 진로 지원 강화), 체질혁신(연구와 교육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의 유연화와 대학별 특성화 추진), 지역혁신(개방적·협력적 플랫폼 구축, 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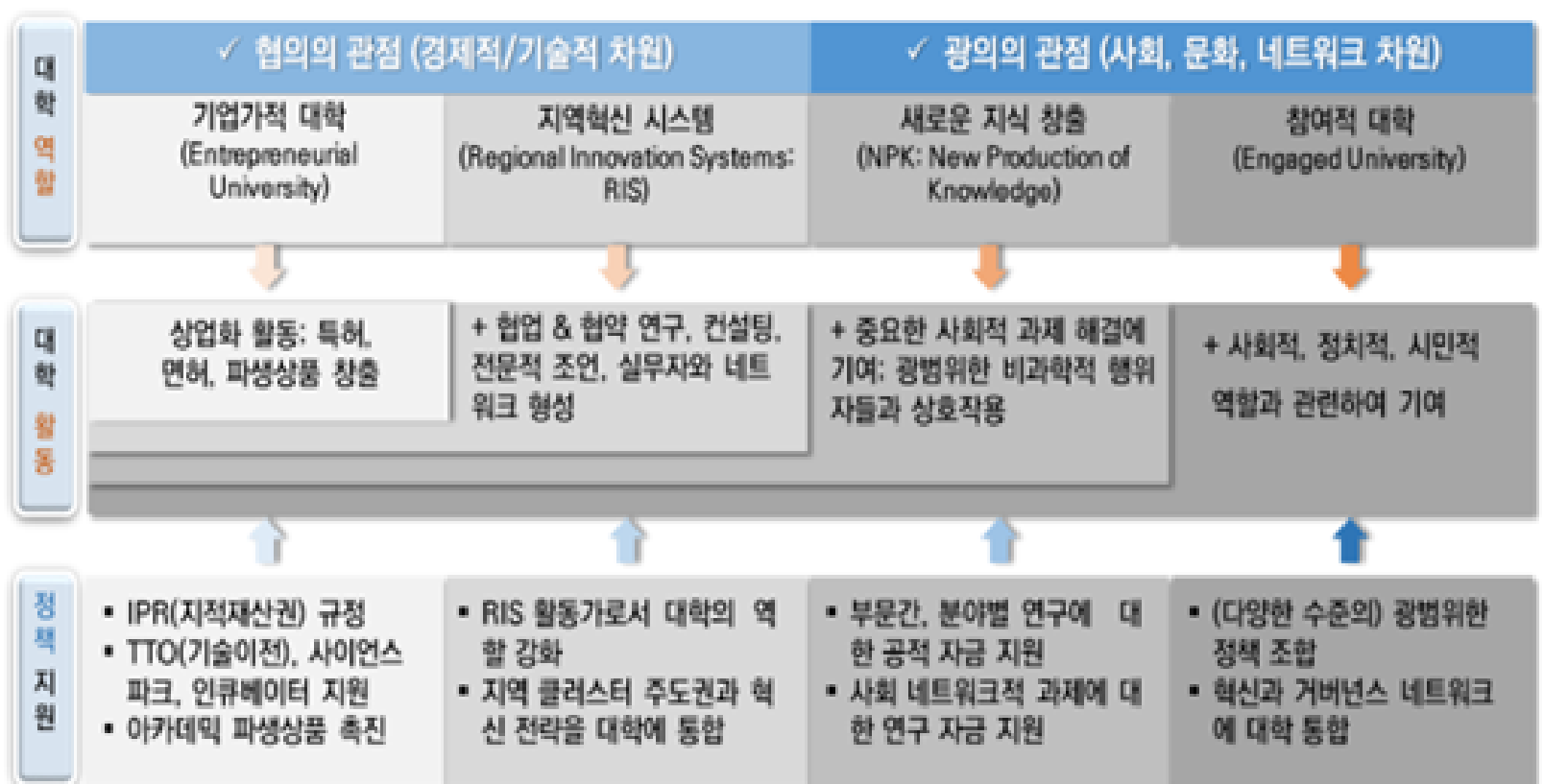
[그림 2] 대학혁신의 구성 요소

## 4. 대학혁신의 방향과 과제

### 1) 연구소 기반의 지식 창출과 국가 및 지역의 혁신성장 견인

대학의 혁신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지식 분야를 개척하고 선도하는 지식 창출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및 사회의 성장은 최첨단의 지식을 확산하는 대학 혁신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대학이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대학이 지식 창출에 관심을 쏟는 지식인들의 조합(guild)으로 출발했고, 이후로도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미국에서 베이돌법(Bayh-Dole Act)이 제정된 이후 대학의 연구결과가 그 기관의 특허로 출원하고 기술사용료를 받게 됨으로써, 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은 단순히 학문적 대상만이 아닌 실용주의적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Patent and Trademark Act Amendments)의 개정으로, 대학의 지식재산권 인정으로 오늘날 대학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산학연의 기반이 형성되고, 연구결과의 산업체 이전을 통해 대학이 신규산업의 창업기능이나 창업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대학-산업 협력이 지역경제 발전 정책의 중요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자료: (Trippi, et. al., 201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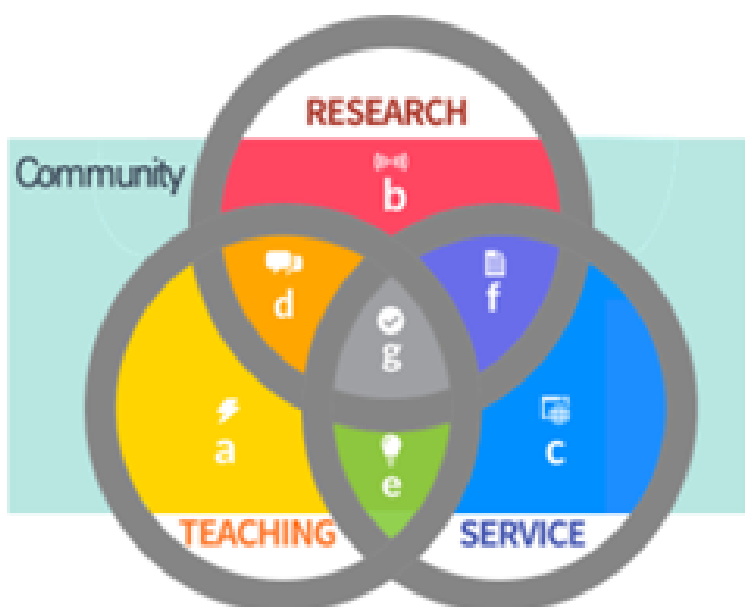
[그림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주요 활동

따라서 향후 연구혁신은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가적 대학,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의 선도자나 중재자로서 대학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우수하고 전문화된 연구소를 보유하고 이들이 연구 성과를 내며, 지적 재산이나 특허를 계속해서 출원하는 지식창출력을 갖추었느냐가 대학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2) 학생주도성 기반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의 유연화

지식창출기관으로서 대학의 중요한 특징은 창출과정에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혁신은 연구혁신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특히 미래교육에 대한 최근 예측에서는 지식창출과정에 학생의 주도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교육의 목표로서 학생주도성(Student Agency)이 핵심 개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생주도성은 미래교육을 위해 OECD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로서, "학생에게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는 가정 아래, "목표를 세우고 성찰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 변화를 낳을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set a goal, reflect and act responsibly to effect change)"으로 정의된다(OECD, 2018). 세계경제포럼(WEF)의 Education 4.0의 미래교육 프레임에서도 개인화 학습과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접근가능한 포괄적 학습 등 학생의 학습경험을 재조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WEF, 2019). 최근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2040년 고등교육의 미래와 관련하여 “학습자 본위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김성희, 2019: 119)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g : Community Service-based Capstone Experiences



d : Community-based Capstone Experiences

e : Service-Learning

f :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 : Community-Based Learning

b : Community-Based Research

c : Community Service and Outreach

자료 : (Furco, 2010).

[그림 4] 삶과 교육이 연계된 교육-연구-봉사 실천형 교육과정 혁신

따라서 차세대 대학교육의 혁신에서도 특강이나 본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수준의 혁신이 아니라, 교양 및 전공 교과에서 지식창출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본질적인 교육혁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교육혁신 방안의 하나로 삶과 교육이 연계된 교육-연구-봉사 실천형 교육과정의 혁신을 검토해 볼 수 있다([그림 4] 참고).

### 3) 대학의 정체성과 개방적·협력적 플랫폼 운영의 균형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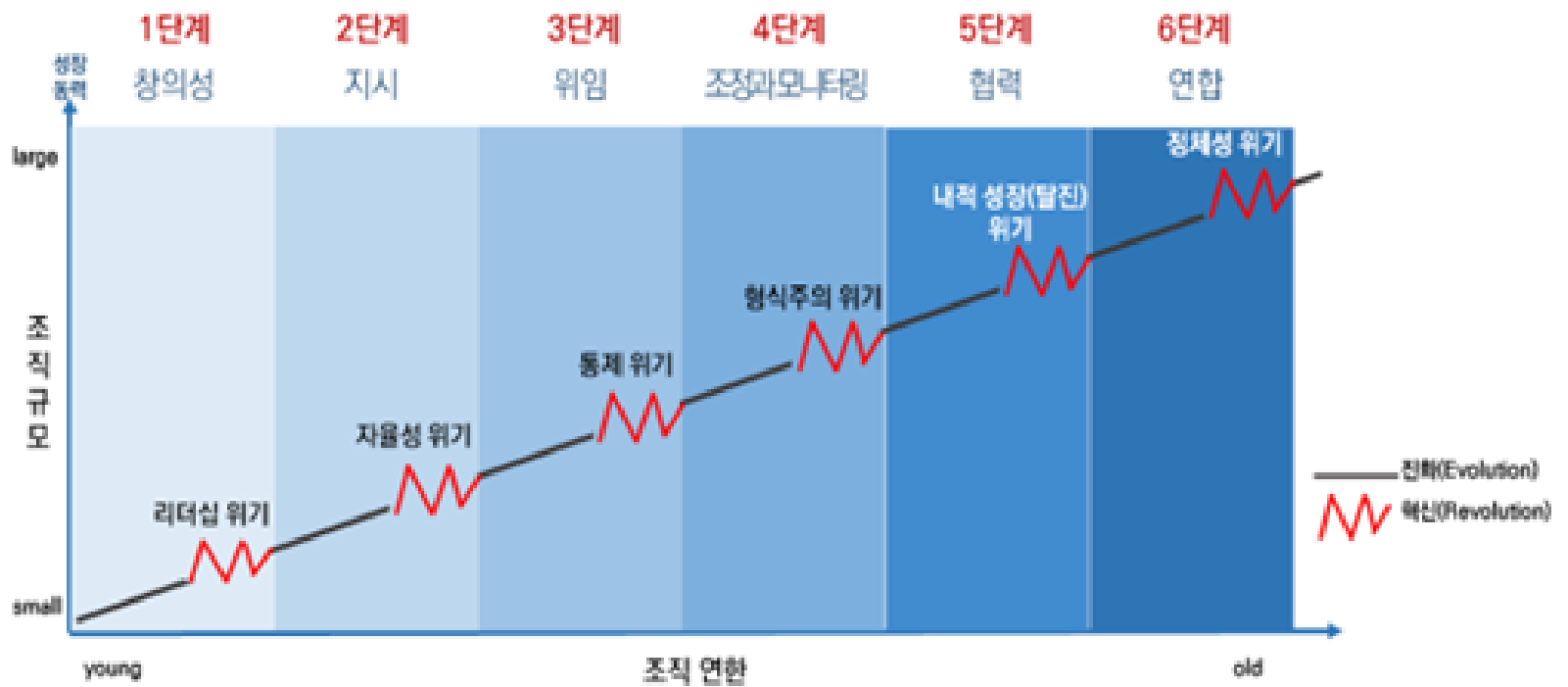
대학의 혁신은 고립된 단독자로서 개별대학의 노력을 넘어서 대학 간 공유와 개방, 대학-지자체간 협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적 책무성과 함께 하는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학은 지역사회의 핵심 소비주체, 지역사회 핵심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 산학협력 기반의 기업자적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과 느슨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여<sup>2)</sup> 이후 가속화되는 인구격감의 시기에 각 대학들은 생존과 자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대학들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과의 보다 강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 조직 간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방식의 내적 협력과, 대학 외부 다양한 조직과의 연대와 연합, 네트워크 조직의 구축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적 협력은 탈진의 위기를, 외적 연대와 연합은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Greiner는 1972년 기업의 성장단계를 5단계로 제시하였고, 1998년 HBR 논평을 통해서 6번째 단계로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의 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경고하였다. 왜 대학은 각종 협력과 연합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는가? 이는 한마디로 대학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Greiner의 조직성장론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구성원의 탈진현상이나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대학혁신을 위한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이들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다.

탈진과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의 초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은 창의성, 즉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그림 5] 참고). 대학은 역사적으로 그 자체가 혁신을 미션으로 하는 독특한 혁신기관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협력의 단위를 소규모화하면서 혁신 창출의 실질적 행동주체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2)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 '21.4, KEDI · (전문)대교협]



[그림 5]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모델

 참고문헌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2019. 8. 6.).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 교육부(2019. 12.).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I·II 유형 기본계획(시안).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2020. 9.).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 방안.
- 교육부(2021. 1. 26.).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 교육부(2021. 5. 20.)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 Axelroth, R. & Dubb, S.(2010). The Road Half Traveled: University Engagement at a Crossroads. The Democracy Collaborative.
- Boucher, G., Conway, C., & Van Der Meer, E. (2003). Tiers of Engagement by Universities in their Region's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37, 887-897. DOI: 10.1080/0034340032000143896
- Etzkowitz, H. & Zhou, C.(2018). The Triple Helix: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2nd Ed.). New York: Routledge.
- Furco, A.(2010). The Engaged Campus: Towar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ublic Engagemen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8:4, 375-390, <https://doi.org/10.1080/00071005.2010.527656>
- Greiner, L. E.(1972). Evolution and Revolution as Organizations Grow.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 Stephanie, L(2021). Why Innovation Is Key To The University Experience Of The Future <https://www.topuniversities.com/student-info/choosing-university/why-innovation-key-university-experience-future>(2021. 10.25 인출).
- Trippl, M., Sinozic, T., & Smith, H. L.(2015). The Role of Univers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Conceptual Models and Policy Institutions in the UK, Sweden and Austria. European Planning. <http://dx.doi.org/10.1080/09654313.2015.1052782>
- Trow, M.(1973).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 대학원 졸업 이후의 일상

이서현(지역교육협력학과 1기/북원여자고등학교 교사)

“

## 웹진을 살펴보며

웹진 발간이 벌써 2년이나 넘었음에 큰 감회를 느낀다. 2년 전 팀이 구성되어 이런저런 자료를 모으고 디자인을 하며 자료를 모으던 시간이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졸업생이라는 다른 지위로 글을 써 내려간다. 초창기 웹진과 같이 했던 만큼 기고해 달라는 부탁을 선뜻 뿌리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잠시 어떤 글을 써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며 기존의 졸업생들의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늘 철학적인 사고관을 가져오던 졸업생들이라 그런지 2년 전의 네이버 지식인 같이 어설퍼던 글은 온 데 간 데 없고 하나같이 학자로서의 글을 읽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하기 전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 하나쯤은 가볍게 대학원 졸업 이후의 일상을 써 내려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써본다. (사실 논문을 읽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사라진 지 오래다.)

## 졸업논문부터 새로운 업무까지

졸업논문의 주제로 ‘고교학점제’에 관하여 작성을 했고 몇 번의 혼남과 수정이 있는 뒤에야 다른 졸업생에 묻혀 같이 통과했던 기억도 되살아 났다.(아 PTSD..)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는지 제도일지 모르나 이 제도는 고등학교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학급 학생들 간의 관계, 담임과 학생의 관계, 복잡해진 교사기간부터 아이들의 교육적 목적을 떠나 하나같이 교사에게 힘들고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제도는 예고되어 왔고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변화의 한가운데서 곳곳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올 초 갑자기 발생한 교육과정부장 자리를 떠맡게 되면서 ‘고교학점제’의 학교정착을 돕는 자리를 직접 운영할 기회가 생겼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자리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자리기에 1년간 자리를 맡기로 했다. 뭐 어찌 보면 별다른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학원을 다니며 나름 논문을 보며 공부해 왔던 부분이고 ‘척척 석사’로서의 보람도 찾아보고자 했다. (어찌 보면 졸업생 가운데 졸업논문과 지금의 업무가 가장 일치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

“

## 현실은...

호기롭게 시작했던 업무는 마이클 타이슨의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라는 명언을 떠올리게 했다. 고교학점제에 관한 이론은 이론이고 학교 현실은 더욱 가혹하게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아름답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업무들은 새롭고 변형된 과제의 형태로 우리를 괴롭혔고, 현실과 달랐던 제도는 외형만 갖춘 채 내면을 다듬지 못한다는 느낌도 받았다.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생각한 뒤에야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고 숨을 돌린 뒤에야 지나간 일들을 다시금 수습할 수 있었다. 정말 이 제도야말로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창의적인 사고관을 확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인데 무엇이 부족하기에 학교 현장은 이리도 힘든 것일까?

## 그래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 교사와 교육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투덜거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현장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느낀다. 실제로 몇 년간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우려되었던 부분들도 상당 부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불편함과 제도에 부합한 과정을 정착시킬 때마다 나름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되돌아보면 혼란스럽고 힘든 와중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석사과정을 거치며 이 제도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관을 확립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논문 하나 없이 다소 급작스레 글을 마무리한 감이 있지만 최소한의 생각과 논리를 심어주신 교수님들과 함께 옆에서 고민해 준 1기 선생님들과 실장님들께 감사함을 표한다.

그리고 지금 작성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논문 주제들이 언젠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어 선생님들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 생각되며,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

# 농어촌 지역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계 고찰

박찬수(지역교육협력학과 박사과정/샘마루초등학교 교사)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에서 지역사회 연계 예술교육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은 지역의 예술교육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첫째, 예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예술 향유 능력을 향상시키며,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만의 고유성이 있음을 알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며 셋째, 학교예술교육의 교수 학습 내용과 방법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과 넷째 협력과 소통, 참여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에 있다.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 고유 예술에 대한 전승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지역예술가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예술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 예술 전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일정 수입을 보전하는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협력해 학교예술교육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지역과 함께해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인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을 추구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향은 미미하다. 농어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일차적인 목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현실에 비춰봤을 때 농어촌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연계 예술교육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농어촌 학교 현장에서 역량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입장에서 농어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그 이유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부 정책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가 부족했다. 농어촌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이 예술을 향유 함으로써 인성교육, 창의성, 협동, 관계, 문화다양성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보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더불어 학교폭력예방과 같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과성은 점차 이 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 인력(강사), 공간, 기자재, 교재 등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자원은 부족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화두는 지역연계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지역 ·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의 세부 항목으로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와 책임교육 구현’이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21).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예술과 예술인을 학생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알맞은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연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다음 네 가지로 보았다.

첫째, 강사 자원으로 지역 예술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학교와 지역 예술을 연결하고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다. 지역 예술가 입장에서는 학교 예술교육을 통해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콘텐츠로 지역 고유 예술이나 예술 교육의 소재로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의 스토리(역사, 전설, 민담 등)가 포함이 된다. 지역입장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예술을 전승할 수 있으며, 지역의 스토리의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학생들의 예술 공연과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 발표 기회 제공이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발표 기회는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강력한 동기유발과 함께 성취감을 주며, 지역민으로서 지역에 역할을 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등 다양한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이다. 지역의 축제와 지역의 예술 시설을 활용한 지역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발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표를 통한 지역연계를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에 안착하고 확산을 기대 할 수 있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재정자원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은 대부분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안정적으로 교부되기는 하지만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지속되지 못하고 종료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전통 예술 전승 사업이나 지역 축제(공연 출연료 및 상금) 등과 같이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연계 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연계한다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연계가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교사의 의지로 개설되거나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풍성하게 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는 하지만 교사가 타학교로 전근을 갈 경우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학교와 지역이 연계해 특성화를 한다면 교사가 전근을 가더라도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연계는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우선 지역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초·중·고등학교여방과후학교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학교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교수했으며 이를 통해 안정된 수업을 기대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추진한 ‘학교 예술 강사 사업’은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하였고, 예술인에게는 자신의 예술 창작활동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sup>1)</sup> 결과적으로 지역 예술가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입원을 제공받았으며, 학교 입장에서는 예술교육이 활성화되었다. 농어촌 지역 입장에서는 농어촌의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농어촌의 소멸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계승과 지역 예술 전승 등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축제 프로그램을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해 설계한다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으며, 축제 참가학생과 가족이 적극적 관람객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축제의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연계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서로 상생하고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

1)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초기에는 학교 예술교육을 일자리 정책과 연관키는 것에 대해 일자리 수 늘리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지역 예술가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다.

#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는 교육을 꿈꾸며

강진주(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속초고등학교 교사)

## 1. 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 사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인 교육 활동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별 교육격차 및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의 큰 변화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 교사의 수급 한계와 적은 학생 수로 인한 선택과목 개설의 제한,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 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는 학교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교육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연구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 교육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 2. 관심 분야에서 실천해 온 교육은?

강원도교육청 중등영어 책임교육 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도내의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지역별 교육현안을 공유하며 우리 지역의 교육 실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농 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공유하고, 책임교육의 실현 방안 및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의 연계 방안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영어책임교육 지원을 위한 교재 「디딤영어」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책임교육 활동을 위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수업 자료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 3. 희망하는 연구분야 및 연구계획은?

#### 1)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연구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일부 특수 목적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교육적 자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먼저 마을교육공동체의 철학과 형성 및 발전 과정 등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성과 및 문제점, 우리 지역의 운영 실태와 특성,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 2)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업모형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넘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통해 학습 경험을 확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학생 주도적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지역 사회의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지역의 환경적 기반을 토대로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연구함으로써 지역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 2023 미래교육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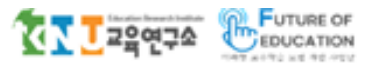
**일시** 2023. 9. 7.(목) 14:00 ~ 15:00

**장소** 강원대학교 교육4호관 108호

**주제** Bystander intervention in the workplace(학교 내 갈등상황에서 주변인 개입)

**강사** 김진구 교수(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Ivana Vranjes 교수(School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ilburg Univ.)



2023미래교육라운지

# Bystander intervention in the workplace

학교 내 갈등상황에서 **주변인** 개입

**2023.09.07. (목) 14:00~15:00**

**교육4호관 108호**

**김진구 교수**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Ivana Vranjes 교수**

(School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ilburg Univ.)



#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 제12차 2023 Innovation Series

- 일시** 2023. 10. 6.(금) 15:00~16:00
- 장소** 강원대학교 교육4호관 204호 / 온라인 ZOOM 병행
- 주제** 미래학습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 강사** 류지현 교수(전남대 교육학과, 교육문제연구소장)



제12차 2023 Innovation Series



# 미래학습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2023.10.06. (금) 15:00~16:00  
교육4호관 204호

류지현 교수



(전남대 교육학과, 교육문제연구소장)



실시간 송출



<https://kangwon-ac-kr.zoom.us/j/7648733929>

회의 ID: 764 873 3929



한국과학창의재단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교육연구소

#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 2023학년도 2학기 지역교육협력학과 학위논문자격시험

**일시** 2023. 9. 9.(토) 9:00 ~ 12:00

**장소** 강원대학교 교육4호관 204호

## 2023학년도 2학기 지역교육협력학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기간** 박사과정 2023. 9. 25.(월) – 10. 6.(금)  
석사과정 2023. 10. 16.(월) – 10. 27.(금)

**심사 기간** 박사과정 2023. 10. 17.(화) – 12. 6.(수)  
석사과정 2023. 11. 7.(화) – 12. 6.(수)

